

부여 東寺里寺址 오층석탑 건립 연대 고찰

강삼혜(姜三慧)

I. 머리말

II.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移轉 기록과 양식

1. 석탑 이전 기록 검토
2.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의 양식

III.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의 양식 특성

1. 기단부
2. 탑신부

IV.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건립 연대와 의의

1. 건립 연대
2. 고려 전기 造塔史的 의의

V.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고려시대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 연구」, 『동원학술논문집』 21(2020); 「북제 북향당산석굴 북대굴(9굴)과 경주 골굴석굴 비교연구」, 『강좌미술사』 54(2020); 「대곡리 암각화 사슴상의 의미와 도상 양식」, 『강좌미술사』 47(2016); 「염거화상 탑지와 탑에 대한 고찰」, 『선림원종 · 염거화상탑지』 국립춘천박물관 소장품 조사 연구보고서 I (2014)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은 수도 개성 양식 계열의 남방한계선을 점하는 중요한 위치에 건립된 고려 전기 탑이다. 갑석 받침인 부연의 사선형 곡면 처리 등에서는 고려 개경 중심의 탑에서 보이는 고려 중앙 양식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며, 11세기 석탑과 양식을 공유하는 특징들도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하층기단의 안상문에서는 고려 1028년(현종 19)에 대대적으로 중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 정림사지에 있는 석불좌상 대좌와, 천안의 천흥사지 당간지주에서 동일한 문양과 치석 수법이 조사되어,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건립 연대를 11세기로 추정했다.

부여 동사리사지는 금강 인근에 위치해 고려의 조운제도상 중요한 교통로이며, 고려 왕실의 원찰인 개태사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고려 현종대(1009~1031) 부여 정림사지가 크게 중수되고 동사리사지도 주요 거점으로 부각되면서 석탑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동사리사지 석탑은 1021년(현종 12) 천안의 흥경사와 흥경원의 창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의 천흥사지 석탑 및 당간지주와도 양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개경 양식의 유입 루트도 살펴볼 수 있었다.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11세기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이 지역의 또 하나의 석조미술품이다. 수도 개경의 거대한 현화사 석등과 석탑과 비견되는 고려 초 논산 개태사나 관촉사,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의 巨佛과 함께 이 석탑 역시 고려 특유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미감을 보이고 있다.

11세기 활발한 지역간 문화교류의 배경 아래 부여 동사리 지역은 고려 개경의 불교문화 영향권 아래 완숙한 문화 역량을 총 발휘해 경쾌하고 날렵하며, 엄정하면서도 세련된 이러한 석탑을 탄생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사선형 부연, 안상문, 갑실,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고려 전기 석탑, 개경 양식 계열 석탑, 천흥사지, 정림사지, 고려 현종

부여 東寺里寺址 오층석탑 건립 연대 고찰

강삼혜(姜三慧)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21호¹ 扶餘 東寺里寺址 오층석탑은 부여군 世道面 동사리 원래 절터에서 1972년경 부여 쌍북리로 옮겨졌다가 1990년 이후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중기단 위에 오층 탑신이 갖추어져 있는 이 석탑은 기단과 탑신과의 비례, 탑의 층수, 안상이나 연판문 등의 莊嚴 彫刻 등을 볼 때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이은 고려 초기 석탑이다. 백제의 故土에 이처럼 엄정하면서도 굳건하지 않는 세련된 모습의 신라계 석탑이 세워진 것과 더불어 하층기단 각 면에 장식된 세 구의 眼象, 기단 甲石의 연판문, 갑석을 받치는 附椽 등에서는 양식의 연원이나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어 주목되는 탑이다. 그러나 이 석탑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몇몇 논문에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 관련 정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²

이 글에서는 고대 교통로상에 위치한 동사리 절터의 성격과 석탑에서 보이는 독특한 장엄 彫飾을 인근 비슷한 시기의 석조미술품과 비교 조사해 제작시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또한 석탑 양식의 연원을 추정해 부여 동사리 오층석탑의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 이 글은 2020년 6월 충남 부여군과 백제고도문화재단의 “부여 동사리사지 학술조사”에 참여해 작성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강삼혜,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의 양식적 특징」, 『부여 동사리사지 학술조사보고서』(2020), pp.74-93 참조.

1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21호로 지정되었다. 현 소재지는 국립부여박물관, 관리단체는 부여군이다.

2 그동안 동사리석탑이 소개된 자료는 1963년 발간된 『韓國塔婆目錄』 충남 부여군 석탑 목록과, 이 자료에서 언급한 『考古美術』 제3권 11호 〈考古美術 뉴—스〉에 아래의 짧은 글이 전한다. “忠南(扶餘) 9. 東寺里五層石塔 세도면 동사리 考美三—一號(金禧庚, 『韓國塔婆目錄』(考古美術同人會刊, 1963), p.38 수록.” 동사리사지 석탑 사진은 1937년 扶餘古跡保存會가 발간한 『扶餘古跡名勝案內記』에 소개된 적이 있다. 부여군, 『부여 동사리사지 학술조사 보고서』(백제고도문화재단, 2020), p.100 참조.

II.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移轉 기록과 양식

1. 석탑 이전 기록 검토

석탑의 원 소재지인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절터에는³ 뚜렷한 건물지가 남아 있지 않지만 塔址 뒤로 민가 마당에 주춧돌로 추정될만한 석재가 있어서 이곳이 원래 탑지였다면 법당 앞에 탑이 놓였을 것으로 보인다. 탑지는 사역의 중심축과는 50도 가량 비껴 있으나 전체 가람 배치나 주변 지형 등을 볼 때 원 위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도 1).

동사리 절터에는 1972년(혹은 1973) 부여읍 쌍북리로 탑을 옮기며 부여군에서 세워 놓은 이전비가 남아 있다(도 2).⁴ 『부여박물관의 발자취』⁵ 도록에는 쌍북리로 옮겨진 석탑 모습이 도 3의 사진으로 남아 있다. 당시 국립부여박물관은 부소산 아래 국립박물관 부여분관으로 있다가 1993년 8월 6일 금성산 남쪽 동남리 현재 터로 신축 이전하는데, 이 사진의 조사 모습은 석탑을 새 부여박물관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실측하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1993년 국립부여박물관 이전과 함께 이 탑도 동남리 새 부여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국립부여박물관 야



도 1. 부여 동사리사지 전경. 단면A는 사역의 중심축으로 추정되나, 탑의 위치는 단면B 선상에 있다. 빨간 지붕 오른편 끝자락이 탑이 위치해 있던 자리 ©백제고도문화재단(축척 : 1/1,500)



도 2. 동사리사지 절터에 세워진 석탑 移轉碑. 비신 높이 96cm

3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는 고려 때 林川郡에 속하였으며, 조선시대 초기에는 임천군 草新面 지역이었다. 절터 인근에는 큰 냇물인 사동천이 흐른다. 동사리 인근은 예전에 강물이 들어와 배가 드나들던 선착장 역할을 하던 배매마을과 聖林寺 등이 있어 寺洞, 寺洞里, 절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각 마을을 병합하면서 東神里, 사동리, 所尼山里, 우산리와 읍내면(임천면)의 북동리, 사동리의 각 일부를 각각 병합해 동신리와 사동리 이름을 따서 동사리라 하고 부여군 세도면에 편입되었다. 부여군청 홈페이지 참조.

4 이전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전한다. “이곳에 서있던 五層石塔을 扶餘邑 雙北里 로타리에 移轉하고 이곳에 記念碑를 세운 것이다 西紀 一九七二年五月 日 扶餘郡守 鄭 燦 環”

숫자 二 위에 누군가가 획을 추가해 三으로 보이도록 고의로 가필한 흔적이 확인된다.

5 국립부여박물관, 『부여박물관의 발자취』(2009), p.187.

외전시실에 있는 동사리사지 석탑은 이중으로 조성된 基壇部와 5층의 塔身部로 구성되어 있다(도 4).

2.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의 양식

석탑은 현재 네 매로 구성된 신부재 받침석 위에 세워져 있다. 기단부는 이중기단으로, 하층기단은 地臺石, 面石(벽체 부분), 갑석이 한 매의 돌로 이루어졌다(도 6). 지대석을 갑석과 거의 동일한 높



도 3. 1990년 부여 쌍북리에 세워진 동사리 오층석탑의 모습. 1미터 이상의 석재 받침대 위에 탑을 세우고, 상륜부도 새로운 부재로 복원한 모습이다. 왼쪽부터 당시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종만, 강희만, 강희천



도 4.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고려 11세기(1028년 추정), 현재 높이 4.5m,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21호, 국립부여박물관(석진화 촬영)

이로 마련하였으며,⁶ 角·弧·角形의 삼단 받침으로 면석을 받치고 있다. 하층기단 면석에는 隅柱(모서리기둥)나 撐柱(안기둥) 없이 각 면 세 개의 안상이 조각되어, 좌우측으로 우주와 탕주를 새겨 넣은 효과를 냈다. 안상 하부는 지대석과 연결되어 있고, 안상 상부는 한가운데 尖形 꼭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얇게 조각된 안상 안에는 地線에서 꽃모양이 크게 솟아올라오는 고려 특유의 안상 모습이다.

하층기단 갑석 아래쪽 받침부로 치석된 부연은 대부분의 탑에서는 1단의 角形 모양으로 표현되는데 반해 동사리사지 석탑의 경우는 완만한 곡면으로 치석된 특징을 보인다. 하대 갑석은 지대석과 유사한 높이와 내밀기로 마련되었으며, 갑석 윗면은 옥개석의 낙수면처럼 경사지게 치석했다. 각 모서리가 만나는 합각부를 접어 올린 것처럼 돌대로 표현해 경사면을 강조한 모습이 경쾌하게 느껴진다.⁷

상층기단은 면석과 갑석이 각각 별개의 돌로 구성되었다(도 5). 상층기단의 부연 모습도 역시 하



상층기단 정면



사선형 곡면으로 처리된 상층기단 부연

도 5. 기단부-상층기단



안상 세 구가 새겨진 하층기단 정면



사선형 곡면으로 처리된 하층기단 부연

도 6. 기단부-하층기단

6 하층기단 갑석 높이는 5.3cm, 지대석 높이는 6cm. 동사리사지 석탑 원 부재 가운데 가장 하부에 있는 부재를 지대석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별도의 지대석이 있는 경우 이 부재를 하대 괴임이나 底石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석조건축 연구자료 발간물의 예를 따라 지대석으로 부르려고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의 석탑』 1(2005), pp.208-210 참조.

7 동사리사지 석탑 기단부는 안상의 표현이나 갑석의 경사진 모습, 결구 부재 등에서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기단부와 유사하여 비교된다. 엄기표, 『원주 興法寺址 石造美術의 特徵과 意義』, 『인문과학연구』 46(2015), pp.196-204.

층기단과 같이 완만한 곡면으로 되어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석에는 양 모서리에 우주가 표현되었고, 갑석 위에는 화려한 복엽의 覆蓮文을 새기고 네 모서리에 돌출된 연꽃 장식을 조각했다(도 11-1). 복련문은 각 변마다 다섯 판씩 표현되어 있는데 양 모서리로 갈수록 연판의 곡면이 휘어지게 표현되어 율동감을 더해준다.

탐신부는 5층을 제외하고 탐신과 옥개석이 각각 별개의 돌로 제작되었다(도 7). 옥개석 모서리에는 風鐸孔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처마 안쪽에는 물끓기흠이 음각되어 있다. 1층 탐신 각 면에는 모서리 양쪽에 우주를 조각했으며, 3단의 층급받침으로 이루어진 지붕돌을 덮었다. 1층 탐신의 폭은 52.3cm이며, 높이는 39.3cm이다. 2층부터 탐신의 높이가 급격하게 낮아져 2층 10cm, 3·4층 6cm, 5층 3cm로 줄어들며 우주 표현도 생략되었다. 1층 탐신 정면에는 가로 9.2cm, 높이 19.0cm, 두께 15.5cm 가량의 크기로 문을 만들고, 탐 내부까지 감실을 확장해 작은 방을 마련했다(도 8).

옥개석은 탐신과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체감을 보이며, 하부에 3단 받침이 일정한 모양으로 단을 이루도록 했다. 처마부는 거의 수평을 이루지만 옥개석 榑閣部에서는 처마를 살짝 들어 올려 변화를 꾀했다. 처마 아래 낙수면은 바깥쪽을 향해 외반되게 치석해 빗물이 탐 안쪽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한 수법을 보인다. 옥개석이 위층의 탐신을 받칠 때 별도의 받침 조각 처리가 없이 바로 탐신이 얹힌 모습이다. 옥개석 면적은 아래 탐신 면적보다 약간 커서 이 두 부재간의 불일치가 오히려 시각적인 상승감을 부추기며 이 탑을 더욱 경쾌하고 날렵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한다.



도 7. 탐신부 서면과 남면(석진화 촬영)



도 8. 초층 탐신 감실 내부. 감실은 바닥이 풀려 상층기단 갑석 윗면이 보인다.

Ⅲ.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의 양식 특성

고려 문화가 원숙해짐에 따라 고려의 특색 있는 탑이 전국에 걸쳐 건립되어 신라 석탑의 양식, 혹은 옛 백제나 고구려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만의 특징을 지닌 여러 유형의 석탑이 건립되었다.⁸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탑 계열 중 신라계 석탑 양식을 따라 방형의 이중 기단 위에 탑신이 올려진 모습이지만, 탑의 구성 부재와 장엄 조식에서는 새로운 고려 탑 양식이 가미된 독특한 모습이 관찰된다. 지역적, 시기적 특성을 보이는 구성 부재의 양식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단부

1) 부여

대부분의 석탑에서 갑석 下面에는 1단의 각형 모양으로 부연이 표현되는데 반해 동사리사지 석탑의 경우는 상층과 하층기단의 부연이 모두 완만한 사선형 곡면으로 표현된 특징을 보인다. 각이 지지 않고 이처럼 완만한 사선형으로 부연이 표현된 예는 도 9에서 보듯이 10~11세기 석탑에서 관찰된다.

처음 사선형 부연이 등장하는 경기도 장단 佛日寺 오층석탑은 951년(광종 2) 고려 광종(재위 949~975)이 어머니 神明王后 유씨의 원찰로 창건하면서 함께 세운 탑으로 육중하면서도 장대한 모습이다.⁹ 왕실에서 조성한 탑에서 사선형 부연이 표현되어 주목된다(도 9-1).

고려 개경의 석탑을 대표하는 玄化寺 칠층석탑에서도 사선형 부연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부분이다(도 9-2). 현종(재위 1009~1031)은 1020년 10월 중 모친의 고향인 황주에서 진신사리가 출현하고, 부친 安宗의 산릉 인근 普明寺 안에서 부처의 어금니 사리가 다시 출현하자 이를 봉안하기 위해 현화사 석탑을 건립하였다.¹⁰

개성 南溪院址 칠층석탑은 『고려사』에 따르면 1283년(충렬왕 9) 7월에 왕명으로 중수되었다(도 9-3). 이 석탑의 부연은 상하대 모두 사선형이지만 동면 하대석 부연 1매만은 각이 진 모습인데 이 부재는 1283년 중수 때 교체된 부재일 것이다.¹¹

제천의 獅子頻迅寺址 석탑(1022)은 사선형 부연 외에도 상층기단 갑석의 연판문과 하대 면석 각

8 박정식, 「고려시대의 탑」, 『탑파』(서울: 예경, 2001), pp.222-225.

9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2014), pp.286-287;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북한의 건축문화 재-사찰건축편·일반건축편』(2006), p.307.

10 玄化寺碑 陰記(1021)

11 『高麗史』卷29「世家」29. 충렬왕 9년(1283) 7월에 廉承益과 孔楡로 하여금 玄化寺를 수리하게 하고 또 南溪院과 王輪寺 석탑도 수리하게 했다(命廉承益·孔楡, 修玄化寺, 又修南溪院·王輪寺石塔). 1915년 남계원사지 석탑 해체 시 염승의 이 발원한 7軸의 『紺紙銀泥妙法蓮華經』이 탑신부에서 발견되었다.



① 경기도 장단 불일사 오층석탑, 고려 951년, 높이 7.44m, 현재 개성 고려박물관(이분희 촬영)



② 개성 현화사 칠층석탑, 고려 1020년, 높이 8.64m, 현재 개성 고려박물관(이분희 촬영)



③ 개성 남계원지 칠층석탑 상하층 부연, 고려 11세기 추정(수리 1283년), 높이 7.52m, 국보 제100호, 국립중앙박물관(본관1966)



④ 제천 사자반소사지 사사자석탑, 고려 1022년, 높이 4.5m, 보물 제94호, 충북 제천시 한수면(사진 문화재청 누리집)



⑤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고려, 높이 5.3m, 보물 354호, 충남 천안시 성거읍(사진 문화재청 누리집)



⑥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상하층 부연

도 9. 기단 갑석 부연이 사선인 고려 석탑의 예

면에 조각된 세 구의 안상 문양 등이 동사리사지 석탑과 비교된다(도 9-4). 밑부분으로부터 꽃이 솟아 오르는 고려의 전형적인 花形 안상 문양 역시 동사리사지 석탑과 같은 계열의 안상 문양이다.

천안의 天興寺址 석탑에도 사선형 부연이 표현되어 있다. 같은 절터에서 나온 聖居山 천흥사명 동종(국립중앙박물관 소장)¹²의 제작연대인 1010년(현종 1)을 근거로 하여 이 탑의 제작연대를 동시기로 추정하고 있으나, 범종과 석탑의 연관관계가 부족해 정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도 9-5).¹³

2) 안상 문양

하층기단 안상은 9세기 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고려시대에 이르면 안상 내 화형 장식과 결합되어 장식성을 더한다.¹⁴ 동사리사지 석탑 하층기단 안상문은 가운데 꼭지가 뾰족하게 올라온 첨두형 안상 계열에 속한다(도 10-1). 안상의 地線이 연장되어 안상 안에 꽃문양이 조각되는 발전된 안상 문양은 고려 석조미술품 중 원주 거둔사 원공국사탑과 탑비(도 10-4) 등 대부분 11세기에 제작된 석조미술품의 장식으로 활용되었다.¹⁵

이 글에서는 옛 백제 지역에 백제 석탑 계열의 성격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고려 탑이 만들어진 점과 더불어, 사선형 곡면으로 치석된 독특한 부연의 모습이 개경 인근 석탑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규모나 위치 면에서 고려의 국가사업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석조미술품의 안상을 조사하던 중 동사리사지 석탑과 동일한 안상 문양을 부여 정림사지 석불상 좌대에서 찾을 수 있었다. 도 10에서 보듯이 동사리사지 석탑의 안상 문양은 부여 정림사지 석불좌상 대좌(도 10-2)의 안상 문양과 일치하며, 안상 아래의 괴임대 물딩 수법까지도 동일해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집단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부여 동사리사지 석탑은 섬록암으로 추정되는 암질로 제작했으며, 부여 정림사지 석불과 대좌 역시 섬록암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석질까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산지에서 암석을 채취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12 聖居山 天興寺 鍾銘」統和二十八年 庚戌二月日」, 출전: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篇(1984)

13 아산 오봉사 삼층석탑(987년) 상층기단 부연도 약간 사선을 이루며 끝이 다소 둥근 모습으로 조사되었으나 동사리 석탑의 부연과는 형태상 차이가 있고, 부재간 교란된 흔적도 있어 제외했다. 정은우, 김지현, 「아산 오봉사 삼층석탑과 명문 분석」, 『미술사학연구』 273(2012), p.7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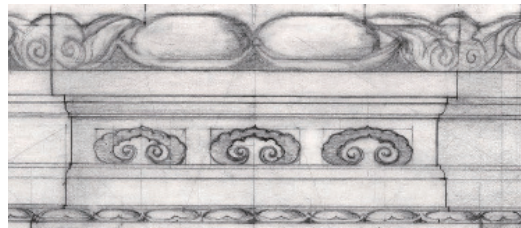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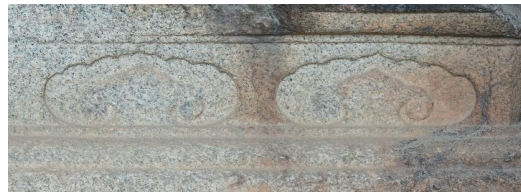
14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상납도의 석탑』 Ⅲ(2018), p.321.

15 첨두형 안상은 주로 11세기 석조미술품에 표현되어 있다. 논산 관촉사 석탑(1006년) 및 배례석,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보물 제354호), 충주 정토사 흥법국사 실상탑과 탑비(1017년, 1018년, 국보 제102호, 보물 제359호), 영변 보현사 구층석탑(1044년),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하대석(1085년, 국보 제101호), 나주 서문석등(1093년) 등을 들 수 있다. 秦弘燮, 「韓國의 眼象紋樣」, 『東洋學』 4(1974), pp.260-261.

16 동사리사지 석탑 석질에 대해서는 최기주 청암문화재연구소장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김종우 학예연구사의 도움을 받았다. 정림사지 석불 대좌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 백제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구성암석은 조립질의 반상 혹은 모화강섬록암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근에서 15.38km 떨어진 강경의 옥녀봉에서 옮겨온 돌로 추정되었다. 이찬희, 김영택, 이명성,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구성암석의 원산지 추정」, 『지질학회지』 43-2(2007), pp.186-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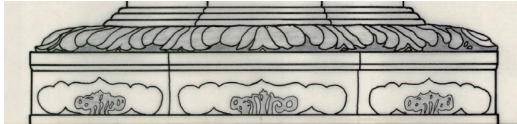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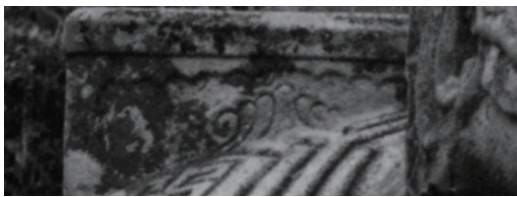


①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안상 세부 문양(석진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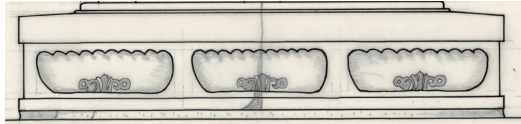


② 부여 정림사지 석불좌상 대좌, 고려 11세기(1028년 추정), 보물 제108호(사진 석진화 촬영; 도면 문화재청 누리집)

③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 고려 11세기, 높이 5.08m, 충남 천안시 성거읍, 보물 제99호(사진과 도면 『정밀실측보고서』, 2017)



④ 원주 거문사 원공국사 승묘탑비와 탑 안상문, 고려 1025년, 보물 제78, 190호 (사진과 도면 문화재청 누리집)



⑤ 철곡 정도사지 오층석탑, 고려 1031년, 국립대구박물관(본관12807) 보물 제 357호(사진과 도면 문화재청 누리집)

도 10. 꽃모양 장식 안상 문양

석탑의 예는 아니지만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도 10-3) 기단부에서도 똑같은 문양의 화형 안상이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¹⁷ 안상 문양뿐 아니라 지대석과 하대 갑석이 동일한 높이와 내밀기로 마련되었고, 기단 갑석의 낙수면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여 합각부에 돌대를 마련한 치석 수법이나 사선형 부연 모습까지도 유사해 동사리사지 석탑(도 5, 9-6)과 동일시기 같은 석장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 천흥사지 탑(도 9-5)과 당간지주 모두에서 사선형 부연이 등장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3) 상대 기단 갑석의 연화문

동사리사지 석탑처럼 상층기단 갑석 위에 연판이 새겨진 탑은 전남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보물 제509호), 경남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보물 제294호) 등이 있다.

도 11에서 보듯이 동사리사지 석탑 연판문은 갑석 크기에 맞추어 연판문 방향을 리듬감 있게 조각한 모습으로, 금산사 육각다층석탑 등 고려 11세기 석조미술품과 비교된다. 특히 부여 정림사지 석불좌상 대좌의 하대 복련석은 고사리처럼 말려 있는 작고 귀여운 귀꽃 모양이 동사리사지 석탑 갑석의 귀꽃과 일치하며, 연판의 활달한 모습 등에서도 동사리사지 석탑 갑석 연판문과 같은 양식 계열로, 평안북도 피현군 성동리 다라니석당(1027) 귀꽃과도 비교된다.¹⁸



①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갑석



② 부여 정림사지 석불좌상 대좌, 보물 제108호



③ 금산사 육각다층석탑, 고려, 보물 제27호(사진 문화재청 누리집)
도 11. 연판문 비교



④ 강릉 신복사지 석탑, 고려 전기, 보물 제87호(사진 문화재청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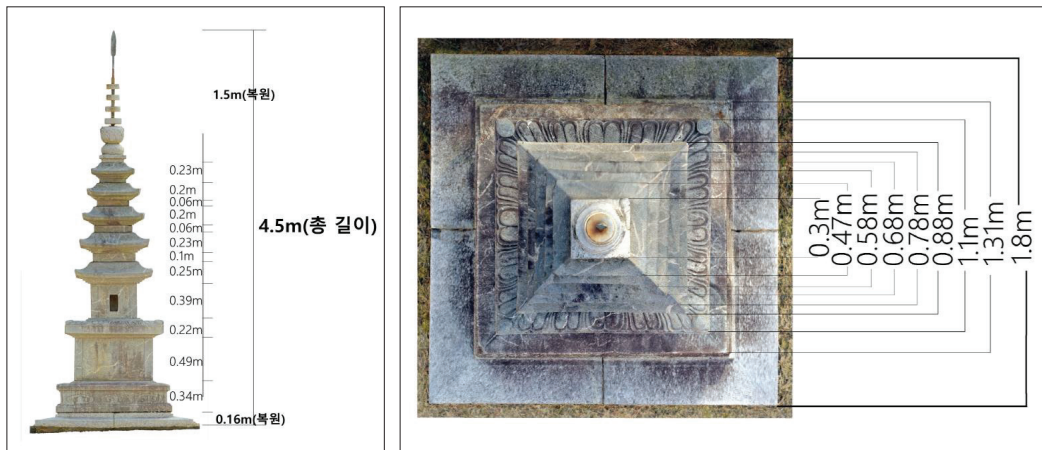
17 천안시,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 정밀실측조사보고서』(2017), pp.126-127.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화형 안상의 출현을 옛 백제 영토의 석조물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18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Ⅳ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182-183; 이은희, 『6. 石幢』, 『北韓文化財解説集』Ⅰ(1997), pp.257-262.

2. 탑신부

1) 초층 탑신 감실

남쪽 탑신에 새겨진 감실(9.2×19.0cm)은 탑 내부까지 확장된 모습이다. 감실 입구보다 천정이 5cm정도 높아 돔처럼 둥글게 치석되었고, 좌우로도 감실 입구보다 약간 넓게 파서 공간을 확보했다. 바닥은 뚫려 있어 상층기단 감석을 볼록하게 치석한 모습이 관찰된다(도 8, 12). 감실 크기나 바닥의 축 등의 장치로 보아 사리장엄구보다는 佛龕이나 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⁹ 감실 외곽 테두리는 2단으로 단차를 두고 돌을대를 두어 사각형으로 구획한 것으로 보아 감실 뒤편에 장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실을 이 탑처럼 실제 공간처럼 조성한 예는 드물지만, 고려시대 들어 신라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던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감실이 조성된 탑이 분포하는 점은 주목된다.²⁰ 고려 초 석탑으로 감실이 마련된 예는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보물 제829호),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1호),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보물 제87호),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보물 제435호) 등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알게 치석된 모습이다.²¹



도 12.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실측 도면 『부여 동사리사지 학술조사 보고서』, 2020)

19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 초층 탑신에는 비교적 깊게 판 막힌 감실을 마련해 불상을 새긴 예를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20 박경식, 「경기도 안성시의 석탑과 석불에 관한 고찰」, 『古文化』 55(2000), p.73; 오호석, 「고려 초기 竹州지역의 석탑과 건립배경」, 『先史와 古代』 31(2009), p.266.

21 방처럼 감실이 마련되어 있는 석탑의 예는 주로 경상북도의 전탑과 모전석탑에서 네 개의 판석을 사용해 감실을 마련한 예가 주목된다. 삼국시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을 비롯해 통일신라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과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고려시대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10세기), 선산 죽장리 오층석탑, 선산 낙산동 삼층석탑 등 경북 지역 전탑 감실의 전통을 이어 탑 정면에 감실을 마련했다. 이들 석탑들은 대부분 문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지방석 등의 부재들이 감실 입구에 남아 있다.

2) 5층의 옥개석

동사리사지 석탑의 옥개석은 밑면 크기가 아래의 탑신 윗면보다 약간 더 커 이 두 부재간의 불일치가 시각적인 상승감을 배가시킨다. 탑신 너비보다 옥개석 너비가 약간씩 큰 예는 통일신라 말 고려 전기로 추정되는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보물 제509호),²² 천흥사지 오층석탑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옥개석은 건립시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 석탑 부재다. 신라 석탑은 추녀 부분이 직선을 이루는 데 반해 고려시대 옥개석은 일정한 체감을 보이는 가운데 처마부는 수평을 이루다가 옥개석의 합각부에서 살짝 처마부를 치켜 올라가도록 치석해 석탑의 외관에 울동감을 주고 있다. 이처럼 옥개석에서 평박한 가운데 경쾌하고 울동감 있는 미감을 창출하는 것은 동사리 석탑과 더불어 천흥사지 오층석탑,²³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등 고려 11세기 석탑의 특징이다.

동사리석탑의 옥개석 너비는 도 12에서 보듯이 층수가 올라감에 따라 10cm씩 줄어들고 있어서 정연한 치석 수법과 체감율을 보여 주목된다. 이러한 수법으로 보아 치밀한 계획하에 제작된 전문 장인 집단에 의한 조형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IV.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건립 연대와 의의

1. 건립 연대

동사리사지 석탑은 엄정하고 치밀한 치석 수법으로 제작되었다. 옥개석의 경쾌하게 상승하는 모습과 기단 갑석의 하강하는 낙수면 방향이 서로 호응하고 있으며, 각 층의 탑신과 옥개석 크기를 약간 어긋나게 해 시각적으로 상승감과 울동미를 자아내고 있는 세련된 석탑이다.

동사리사지 석탑의 특징 중 지역성을 반영하는 양식적 특징과 고려 11세기 석조미술품과 공유하는 시대적 특징으로 나누어 건립 연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1) 개성 지역 석탑 양식의 유입

개성의 불일사 오층석탑(951), 현화사 칠층석탑(1020), 남계원지 칠층석탑 등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한 10~11세기 석탑들에서 독특한 사선형 부연으로 치석된 모습을 앞서 찾아볼 수 있었다(도 9). 이 탑들은 모두 왕실의 주도로 조성된 혹은 보수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과 당간지주에서도 개성 지역 탑에서 보이는 사선형 부연이 발견되고 있는데, 10km정도 떨어진 천흥사지 지근거리에는 현종이 주도해 1016~1021년 동안 건립한 奉先弘慶寺와 부속시설로 客館인 廣

22 구례 논곡리 석탑 옆에는 사자와 코끼리 대좌로 보이는 소형 대좌 두 구와 공양자상도 함께 남아서 전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5), pp.458-495 참조.

23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천흥사지학술조사보고서』(1994), p.27.

緣通化院(홍경원)이 위치해 있다. 홍경사 공사는 개경의 승려 廻兢이 都官司가 되어 부지를 선정하고, 都監에서 건축 재료를 공급하고, 別監使는 건축과 사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술자들을 관할해 조성되었다. 중앙 정부가 직접 성조도감을 구성해 현화사를 건립한 것과는 달리 홍경사는 왕명을 받들어 개경 승려들이 직임을 맡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²⁴ 천흥사 탑과 당간지주 제작에도 개경의 석장들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선형 부연이 동사리 석탑에서도 보이므로 홍경원이 건립되면서 천안과 부여 지역으로 개경의 스타일이 이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11세기 시대 양식의 공유

부여 동사리사지 석탑 안상 문양은 정림사지 석불좌상 대좌와 천흥사지 당간지주 안상 문양과 매우 흡사해 같은 시기 동일한 제작 집단에 의해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도 10-1~3). 천흥사지 오층석탑은 동사리사지 석탑에 비해 장대한 느낌은 있지만 두 탑 모두 각 층의 탑신 너비보다 옥개석 너비가 약간씩 큰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이 세 석조물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림사지 석불좌상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1942년 부여 정림사지 강당 터에서 “太平八年 戊辰 定林寺 大藏當草”가 써진 명문 기와가 발견되어 寺名이 정림사라는 것과, 태평 8년인 고려 현종 19년(1028) 정림사 대장전이 중수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²⁵ 정림사지 석불은 최근 사비기, 즉 백제시대에 제작된 장육소조상의 石心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²⁶ 백제 석심을 재활용하여 장육소조상을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림사지 팔각연화대좌는 하대 받침 각 면에 동사리사지 석탑과 천흥사지 당간지주와 똑같은 안상 문양이 새겨져 있으므로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⁷ 동일한 안상 문양을 공유하고 있는 이 세 석조물의 제작연대에 대해 정림사지의 “太平八年”銘文瓦를 근거로 1028년(현종 19)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림사지 명문와와 정림사지 대좌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없어 본 논문에서는 이 세 석조물의 연대를 11세기로 비정하고자 한다.

2014년 불교문화재연구소 현장 조사시 동사리사지 석탑이 있던 장독대 부근에서 명문와 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기와편에는 마룻대를 뜻하는 “棟”자와 내면에서 윤철흔(폭 0.6cm)이 기와 단축 방향과 나란하게 확인되었다. 윤철흔은 원주 금대리사지 “太平丁卯四月日 四天王寺 金堂”(1027)명 이전

24 崔沖, 『奉先弘慶寺記』, 『東文選』 권64 記 및 봉선홍경사사적갈비(1026년, 국보 제7호)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이인재, 「高麗 前期 弘慶寺 創建과 三教共存論」, 『한국사학보』 23(2006), pp.95-122; 천안시,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2017), pp.101-107.

25 1942년 日人학자 藤澤一夫 씨에 의한 부여 정림사지 1차 발굴조사 때 강당 터에서 “太平八年 戊辰 定林寺 大藏當草”가 써진 명문 기와가 발견되어 사명이 정림사라는 것과, 태평8년인 고려 현종 19년(1028) 정림사 대장전 중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윤무병, 「부여 정림사지 발굴기(發掘記)」, 『백제연구총서』 2(1992), pp.377-417; 조훈철, 「定林寺址의 美術史的考察」, 『문화사학』 6·7(1997), p.183.

26 김지호, 「대형 소조상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석심 소조상론-」, 『美術資料』 86(2014), pp.43-47.

27 최성은, 「현종대의 석탑 조각과 그 의장」,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서울: 일조각, 2013), pp.220-221.

의 암키와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고, 부여 정림사지와 부소산성의 “太平八年”(1028)명 기와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²⁸ 동사리사지 명문와의 상한 연대인 1028년과, 동사리석탑의 안상 문양의 시기로 비정한 (정림사지 석조대좌 제작시기인) 1028년과 일치하고 있어 이 탑의 건립 연대를 1028년경인 11세기 전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와의 “棟”자는 건축과 관련된 글자로 보이며, 사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인 院이나 조창과 관련된 시설물 이름이 새겨진 기와로 추정되므로 향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²⁹ 1021년 현종에 의해 숙박시설을 갖춘 院館 사찰인 봉선홍경사가 새로운 사찰 형태로 건립되면서³⁰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도 앞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2. 고려 전기 造塔史的 의의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은 치밀하고 엄정한 수법으로 제작된 고려 전기 우수한 석탑 중 하나로 당대의 시대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도 13). 기단부의 사선형 부연에서는 현화사 석탑 등 고려의 수도에서 발전된 개경 양식의 특성을 잇고 있어 개성 양식 계열의 남방한계선을 점하는 중요한 위치에 건립된 탑으로 고려 전기 석탑사에서 차지하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상 문양에서는 인근 지역의 석조문화재, 특히 부여 정림사지 석조대좌와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와 공유하는 11세기의 시대 양식을 간직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고려 왕실과 관련된 천안의 봉선홍경사와 홍경원 건립 배경과 연관 지어 개경의 양식이 유입되는 경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충남과 전남을 잇는 금강과 근접한 곳에 위치한 동사리사지 석탑은 임천에서 세도로 넘어가는 교통로 상에 위치해 백마강의 나룻터인 浪濤津을 통해 강경으로 이어지는 고대 뱃길로 통한다.³¹ 고려의 조운제도는 바다로 연결된 포구에 곡식을 집결한 뒤 수로로 이동하는 방식이었기에 관리들이 지방에 파견되어 조세운송을 담당했다. 동사리사지는 지방의 세곡과 각종 물류 이동과 조운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고대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³² 부여 정림사지와 동사리사지 석탑의 위치는 지도 위에서 거의 직선상에 놓여 있으며, 고려 태조 왕건의 원찰이자 眞殿寺院인 개태사로 이르는

28 이인숙, 『통일신라~조선 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93; 부여군, 앞의 책(2020), pp.102-103 재인용. 이인숙, 『고려시대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고고학』 6-1(2007), p.38.

29 강원도 원주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요지에 설치된 興元倉 인근에는 고려 초 대찰인 원주 흥법원, 법천원 등을 비롯해 영월 흥녕선원, 여주 고달원 등 대민구제와 숙박시설을 겸하는 “院”으로 불린 사찰이 자리잡고 있었다. 서영일, 『남한강 수로(水路)의 물자유통과 흥원창(興元倉)』, 『사학지』 37(2005), pp.207-210.

30 최연식, 『고려시대 원관(院館) 사찰의 출현과 변천과정』, 『이화사학연구』 52(2016), p.5.

31 부여군, 앞의 책(2020), p.100.

32 윤용혁, 『고려 5백년 충남의 역사』, 『개태사-태평성대 고려를 열다』(부여: 국립부여박물관, 2018), pp.14-27; 문경호, 『고려시대의 조운제도와 조창』,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공주: 국립공주박물관, 2018), pp.210-229 참조.



도 13.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고려 11세기(1028년 추정), 탑신부 높이 1.72m, 국립부여박물관



도 14. 부여 정림사지 석불좌상과 대좌, 대좌 건립시기 고려 11세기(1028년 추정), 높이 5.62m, 보물 제108호(사진 문화재청 누리집)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³³

동사리사지 석탑 인근에는 고려 초 巨佛의 유행으로 논산 개태사·관촉사 등과 함께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7호)이 위치해 있다. 또한 이 무렵 부여 정림사지가 크게 중수되어 거대한 석불좌상(도 14)이 건립(혹은 중수)되고, 동사리 일대 역시 이 시기 고려 불교 문화에 중요한 거점으로 부각되어 석탑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新增東國輿地勝覽』卷18 忠淸道 連山縣 불우조; 安鼎福, 『東史綱目』 제14하 계묘년 공민왕 12(1363).

V. 맺음말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은 수도 개성 양식 계열의 남방한계선을 접하는 중요한 위치에 건립된 고려 전기 탑이다. 갑석 받침인 부연의 사선형 곡면 처리 등에서는 고려 개경 중심의 탑에서 보이는 고려 중앙 양식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며, 11세기 석탑과 양식을 공유하는 특징들도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하층기단의 안상문에서는 고려 1028년(현종 19)에 대대적으로 중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 정림사지에 있는 석불좌상 대좌와, 천안의 천흥사지 당간지주에서 동일한 문양과 치석 수법이 조사되어, 동사리사지 오층석탑 건립 연대를 11세기로 추정했다.

부여 동사리사지는 금강 인근에 위치해 고려의 조운제도상 중요한 교통로이며, 고려 왕실의 원찰인 개태사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고려 현종대(1009~1031) 부여 정림사지가 크게 중수되고 동사리사지도 주요 거점으로 부각되면서 석탑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동사리사지 석탑은 1021년(현종 12) 천안의 흥경사와 흥경원의 창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의 천흥사지 석탑 및 당간지주와도 양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개경 양식의 유입 경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11세기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이 지역의 또 하나의 석조미술품이다. 수도 개경의 거대한 현화사 석등과 석탑과 비견되는 고려 초 논산 개태사나 관촉사,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의 巨佛과 함께 이 석탑 역시 고려 특유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미감을 보이고 있다.

11세기 활발한 지역간 문화교류의 배경 아래 부여 동사리 지역은 고려 개경의 불교문화 영향권 아래 완숙한 문화 역량을 총 발휘해 경쾌하고 날렵하며, 엄정하면서도 세련된 이러한 석탑을 탄생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東文選』

『東史綱目』

【단행본, 보고서, 도록】

강삼혜, 진정환, 『조형미의 극치-석조미술』 국립중앙박물관 명품선집 14, 2006.

강우방, 신용철, 『탑』, 서울: 솔, 2003.

高裕燮, 『又玄 高裕燮 全集4-韓國塔婆의 研究』 下, 파주: 열화당, 2010.

金禧庚, 『韓國塔婆目錄』, 서울: 考古美術同人會, 1963.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의 석탑』 Ⅱ, Ⅲ, 2017, 2018.

_____, 『경상북도의 석탑』 Ⅰ, Ⅴ, Ⅷ, Ⅸ, 2007, 2011, 2014, 2015.

_____, 『전라남도의 석탑』 Ⅰ~Ⅲ, 2005~2006.

_____, 『전라북도의 석탑』, 2004.

_____, 『北韓文化財解説集』 Ⅰ, 1997.

국립부여박물관, 『개태사-태평성대 고려를 열다』, 2018.

_____, 『부여박물관의 발자취』, 2009.

국립공주박물관,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 2018.

국립중앙박물관, 『우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201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북한의 건축문화재』 사찰건축편 · 일반건축편, 2006.

_____, 『佛敎寺院址』 下, 1998.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上, 1977.

문화재청, 사)불교문화재연구소, 『韓國寺址總覽』 上, 2010.

박경식, 『탑파』 Korean Art Book, 서울: 예경출판사, 2001.

_____, 『한국의 석탑』, 서울: 학연문화사, 2000.

부여군, 『부여 동사리사지 학술조사보고서』, 부여: 백제고도문화재단, 2020.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편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Ⅳ 고려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정영호,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서울: 일조각, 2013.

충청남도, 『文化遺蹟總覽-寺刹篇』, 1990.

천안시, 『천안 봉선흥경사 갈기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7.

_____,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7.

_____,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7.

허흥식,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篇, 성남: 亞細亞文化社, 1984.

【논문】

강삼혜, 「부여 동사리사지 오층석탑의 양식적 특징」, 『부여 동사리사지 학술조사보고서』, 2020.

고운수, 「高麗 顯宗代의 體泉郡과 漆谷郡-고려전기 개경정부의 지방지배 전략과 지방사회의 변화」, 『역사와 담론』 36, 2003.

김지호, 「대형 소조상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석심 소조상론-」, 『美術資料』 86, 2014.

문경일, 「고려시대의 조운제도와 조창」,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8.

박경식, 「경기도 안성시의 석탑과 석불에 관한 고찰」, 『古文化』 55, 2000.

서영일, 「남한강 수로(水路)의 물자유통과 흥원창(興元倉)」, 『사학지』 37, 2005.

엄기표, 「원주 興法寺址 石造美術의 特徵과 意義」, 『인문과학연구』 46, 2015.

오호석, 「고려 초기 竹州지역의 석탑과 건립배경」, 『先史와 古代』 31, 2009.

윤무병, 「부여 정림사지 발굴기(發掘記)」, 『백제연구총서』 2, 1992.

윤용혁, 「고려 5백년 충남의 역사」, 『개태사-태평성대 고려를 열다』, 국립부여박물관, 2018.

이병희, 「고려 현종대 사상과 문화정책」, 『한국중세사연구』 29, 2010.

이인숙, 「통일신라~조선 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_____, 「고려시대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고고학』 6-1, 2007.

이인재, 「高麗 前期 弘慶寺 創建과 三教共存論」, 『한국사학보』 23, 2006.

이찬희, 김영택, 이명성,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구성암석의 원산지 추정」, 『지질학회지』 43(2), 2007.

전민숙, 「高麗時代 平壤 栗里寺址 五層石塔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98, 2018.

_____, 「고려전기 석탑의 특성 연구」, 『동악미술사학』 15, 2013.

정은우, 김지현, 「아산 오봉사 삼층석탑과 명문 분석」, 『미술사학연구』 273, 2012.

조훈철, 「定林寺址의 美術史的 考察」, 『문화사학』 6 · 7, 1997.

秦弘燮, 「韓國의 眼象紋樣」, 『東洋學』 4, 1974.

최성은, 「고려 현종대 석탑부조의 연구」, 『강좌미술사』 30, 2008.

최연식, 「고려시대 원관(院館) 사찰의 출현과 변천과정」, 『이화사학연구』 52, 2016.

홍대환, 「高麗式 石塔樣式의 完成과 地方社會統合-현종대 명문석탑의 건립목적과 신앙식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 연구』 45, 2016.

A Study on the Construction Date of the Five-story Stone Pagoda at the Dongsa-ri Temple Site in Buyeo

Kang Samhye*

The Five-story Stone Pagoda from the Dongsa-ri Temple Site in Buyeo, dated to early Goryeo Dynasty, is valuable in that it is the southernmost example of the capital Kaesong pagoda style. This pagoda exhibits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 Goryeo style featured in the pagodas built in and around the capital Kaesong, such as the diagonally curved section of the support for the cover stone above the upper stereobate. It also shares stylistic affinities with eleventh-century stone pagodas. The ansangmun (elephant eye patterns) in the lower stereobate of the Dongsa-ri Five-story Stone Pagoda resemble those in the pedestal of the Stone Seated Buddha (which was likely repaired in 1028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jong), at the Jeongrimsa Temple site in Buyeo. It also reflects elements found in the flagpole supports from the Cheonheungsa Temple site in Cheonan. The sculpting techniques used in these patterns are also similar. Such congruencies suggest that the Dongsa-ri Five-story Stone Pagoda was built in the eleventh century.

The Dongsa-ri Temple Site in Buyeo, located near the Geumgang River, served as a principal route for transporting grain-tax during the Goryeo Dynasty. It was also situated along the way to the Goryeo royal temple, Gaetaesa Temple. The geographical significance of the site and the extensive repairs undertaken at Jeongrimsa Temple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jong (r. 1009–1031) of the Goryeo Dynasty appear to have impacted the production of the Dongsa-ri Five-story Stone Pagoda. The Dongsa-ri Five-story Stone Pagoda also bears stylistic resemblances to the stone pagoda and flagpole supports found at neighboring Cheonheungsa Temple, which is presumed to b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Honggyeongsa (or Honggyeongwon) Temple in 1021 in Cheonan. This indicates the route of the transmission of the Kaesong pagoda style.

* Curator of the Fine Arts Divis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Five-story Stone Pagoda from the Dongsa-ri Temple Site pays testimony to the cultural accomplishments of eleventh-century stone artworks in Buyeo and adjacent regions. This pagoda embodies the majestic and assertive aesthetics that define of the Goryeo Dynasty, as do early Goryeo colossal Buddhist sculptures, including the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at Daejosa Temple in Buyeo, the Stone Standing Buddha Triad at Gaetaesa Temple in Nonsan, and the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at Gwanchoksa Temple in Nonsan. All of these bear similarities to the massive stone lantern and pagoda at Hyeonhwasa Temple in the capital Kaesong.

The production of the light, sleek, sharp, and sophisticated Dongsa-ri Five-story Stone Pagoda is presumed to reflect the maturity of the cultural competence of the people in Dongsa-ri, Buyeo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t culture from the capital Kaesong during the eleventh century, a time marked by active cultural exchanges among regions.

Keywords: Diagonal support for a curbstone, ansangmun (elephant eye pattern), tabernacle, Five-story Stone Pagoda from Dongsa-ri temple site, early Goryeo stone pagoda, Kaesong style stone pagoda, Cheonheungsa Temple Site, Jeongrimsa Temple Site, King Hyeonjong of the Goryeo Dynasty